



포교세미나

주5일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일시 : 불기 2545년 5월 1일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문화교육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教 示

一．持戒清淨

一．見性成佛

一．衆生教化

宗正法傳

◎ 포교의 목적

포교는 부처님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포교의 원칙

1. 삼보에 대한 불퇴전의 신심으로 깨달음의 성취와 불국토 건설에 나아가게 한다.
2. 부처님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실히 수행하여 지혜와 자비의 삶을 구현하게 한다.
3. 계정혜 삼학을 두루 갖추고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4. 사회를 정토화하기 위해 평등, 평화, 해탈의 불교정신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병폐를 치유하게 한다.
5. 교단과 불법을 호지해 갈 호법정신과 대승원력을 함양하게 한다.

◎ 포교의 지침

1. 삼보에 대한 굳건한 보살의 서원으로 교화한다.
2. 부처님의 교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정진하여 불법홍포에 신명을 다한다.
3. 중생을 수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화방편을 수립한다.
4. 동사섭의 정신을 사회 속에 구현한다.
5. 대승원력으로 요익중생과 교단발전을 위해 교화한다.

식 순

삼귀의

반야심경

포교원장스님 개회사

포교분과위원장스님 인사말

주제 발표

- 주5일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 /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주5일근무제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응방안 / 범인스님 (대흥사 상설수련원장)
- 주5일근무제에 따른 도심사찰의 대응방안 / 심산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약정 토론

- 유승무(중앙승가대학교수)
- 지현스님(종회의원, 청량사주지)
- 일문스님 (보광사주지)

종합 토론

- 참가대중

사홍서원

목 차

☞ 개회사

☞ 인사말

☞ 주제발표문 · 토론문

1. 주5일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 13

 발표 /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토론 / 유승무(중앙승가대학교수)

2. 주5일근무제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응방안 29

 발표 / 법인스님 (대흥사 상설수련원장)

 토론 / 지현스님(종회의원, 청량사 주지)

3. 주5일근무제에 따른 도심사찰의 대응방안 45

 발표 / 심산스님 (통도사 부산포교원 주지)

 토론 / 일문스님 (과주 보광사 주지)

개 회 사

부처님께서서는 사람마다 대상마다 근기와 시기에 따라 가장 적절한 표현과 교화의 방법으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대와 세월을 넘어선 오늘날까지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눈 돌릴 틈 없이 일해 나가며 자신을 찾는 데에는 조금의 여유마저 찾기 힘들었던 현대인들에게 이제 주5일 근무제라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물론 생활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각계에서는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미리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우리 불교계 역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가져다줄 변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에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 불교계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마음이 병들어 가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자연과 산과 절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교계에 유리한 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준비가 없더라도 현대인들이 자연 그대로의 산과 절을 접하면서 쌓여있는 번뇌를 모두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준비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물들지 않고 참 나를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사회를 정화하고 아름다운 행을 통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큰 깨우침으로 나아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닦아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세상을 건설해 가는데 불교가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려진 새로운 공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쉼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아가 마음의 번뇌를 모두 씻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닦아나가서 다시는 번뇌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정진해 나가도록 한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 즉 ‘佛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잘 한

다면 지금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마음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변화는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그 변화 속에서 참다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 서지 못한다면 인류의 정신사를 선도하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상황에 올바른 답을 주셨던 부처님같이 이 시대 진정으로 해야 할 것들을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모아서 지혜를 자아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모든 종도의 지혜를 모으는 법석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다시 보완된 지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 교구본사의 소임자 스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교구의 특성을 살린 포교방안을 논의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포교에 대한 원력으로 포교현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계시는 중앙총회 포교분과 위원 스님들과 위원장 장곡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가 계기가 되어 전국의 사찰에서 포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 이 시대에 맞는 올바른 역할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46(2002)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도 영

인 사 말

어느덧 우수경칩이 지나 이제 완연한 봄임을 알리는 자연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국의 사찰에서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환희심이 넘칠 것입니다.

불교계의 가장 큰 명절인 석가탄신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에 대하여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제는 신도들의 종교생활에 큰 변화를 미치기 때문에 각 종교계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신도의 참여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다른 종교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 저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주5일 근무제는 불교 포교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 각 사찰에서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복지·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려는 노력은 긍정적 이미지로 불교를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위적인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준비를 할 수가 없기에 종단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각차가 큰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하고 해결책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승랍과 경험 차이를 떠나 솔직하게 현실을 토론하고 함께 향상일로(向上一路)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불기 2546(2002)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장 곡

발 표 문

주 제 1 : 주 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

주 제 2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응방안

주 제 3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심사찰의 대응방안

주 5일제 근무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

노부호(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주5일제 근무의 배경과 의미

2. 경제 사회적 영향

- ① 경제에 미치는 영향
- ② 기업에 미치는 영향
- ③ 사회적 영향

3. 불교계의 대응 방안

- ① 환경변화와 불교계의 대응
- ② 여가의 의미와 불교계의 대응
- ③ 불교계 현재 상황과 과제

주 5일제 근무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

노부호(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주5일제 근무의 배경과 의미

정부는 2002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변화와 개개인의 여가 확대가 생활양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를 의미하고 늘어난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도입시기와 방법에 있고, 노사정간에 시각의 차이가 있다.

도입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주5일제를 도입할 때의 국민소득이 20,000\$ 이상이였다. 심갑보, "주5일 근무제 전제조건 있다.", 월간 경제풍월, 통권 25호, 2001.9.

일본이 주5일 근무제도를 처음 입법화할 당시(1987년) 국민소득이 약 20,000\$이였으며 핀란드가 1996년 도입시 24,400\$이였고 오스트리아가 1994년 도입시 약 24,405\$, 이탈리아가 1997년 도입시 약 20,207\$였는데 우리의 국민소득은 현재 8,700\$ 수준이다.

또한 지금도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임금수준이 높아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데 주5일제가 도입되면 해외로 공장이전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 휴가일수는 현재 101-111일에서 153-163일 (여성근로자는 165-175일)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나라가 되어 이럴 경우 1년에 절반을 쉬는 셈이 되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월차 휴가제와 여성의 생리 휴가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 일각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율을 25%로 낮추고 초과근로 상한선을 확대하는 것을 또다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율이 50%로 규정되어 ILO기준인 25%보다 훨씬 높은 실정인데 외국의 경우 임금 할증율은 대부분 25%라는 것이다.

만약 초과근로 임금 할증률을 현행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40시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금 인상효과가 14.5%에 달하여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하나의 대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생산성이 오르는 산업화 시대와 달리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여가 시간의 확대를 통해서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나감으로써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OECD 회원국으로서 또한 국민 소득 10,000\$ 시대에서 20,000\$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만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생활 방식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균형 잡힌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명제가 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는 하나의 대세가 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에 의해 생산성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획일적 적용보다는 산업과 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일본의 75% 미국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 5일제의 획일적 적용은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주 5일 근무제는 또한 경영 관행의 변화와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종업원 평가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이 달라야 하고 연봉제와 같은 성과급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성과와 적성에 따라 종업원들이 직장 내에서 재배치되거나 타 회사로 전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상도 경영의 재정적, 운영적 투명성이 확보되는 전제 위에 기업의 재무적 성

과에 연계되는 보상 시스템이 확립되어 주 5일 근무제로 생산, 매출, 이익이 줄어든다면 그에 따라 보상도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2. 경제 사회적 영향 ¹⁾

①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9.1% 단축할 경우 총고용은 5.2% 증가를 가져온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이 용이한 비정규 근로자를 선호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LG 경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의 9.1% 감소는 약 5.9%의 생산성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노동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장시간 근로를 피한다는 것은 한계생산력이 계속 감소하는 영역에서의 노동을 줄인다는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하고, 개인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며, 기업이 생산성 향상문화를 정착해 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역으로 근로자가 월요병과 주말병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조직의 업무관행이 계속 느슨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기업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므로 근로시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동안 근로관행이 느슨하고 생산성이 선진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체계적인 관리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도 양적 중시에서 질적 중시로 넘어가는 경향을 가속화하고, 성과에 기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형 보상제도가 더 강화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잘 정착되면 조직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지만 잘못되면 조직의 분위기가 너무 경쟁적이며 노동생활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변동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상이

1) <배종석,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경제 사회적 분석과 전망">

증가할수록 근로자의 임금안정성이나 생활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사회적 영향

여가생활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없어 여가생활을 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산업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산업이 약화될 수 있다.

주5일제 근무제 도입으로 주말여행, 스포츠, 취미활동 등의 증가로 호텔업, 항공운송, 자동차 렌트, 레저산업이 활성화 되고 문화산업, 교육산업이 고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활용 및 관리가 양 중심에서 질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제2의 인생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다. 취미활동과 생애학습 등 개인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교육기관과 프로그램)도 요구될 것이다. 지역사회봉사와 참여도 늘어나서 지역주민간의 유대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적인 지역중심의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가족단위의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3. 불교계의 대응 방안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자의 감소를 비롯, 본당 소속개념의 약화 및 본당 사목의 효율성 저하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많은 사찰이 도심을 벗어나 산과 바다를 접한 전원 속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 5일 근무제의 결과 나타나는 주말 여가를 보내는 국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또한 다 종교 사회로서 종교는 형태는 달라도 그 뿌리는 같다는 일원 다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도 불교의 포용성이 적용하기 쉽고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불교계가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많은 국민을 불교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① 환경변화와 불교계의 대응 ²⁾

지금 우리는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뀌는 급격한 환경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 환경변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주5일 근무제에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알아보자.

오늘을 설명하면서 그냥 변하고 있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것은 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불교계는 불가피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주류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나타나는 정보화이다. 10년 전 우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던 정보기술은 겨우 복사기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팩스,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이 있고 전화도 더욱 발달되었다. 정보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혁명일 것이다. 이제 의사소통에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제 정보는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즉시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TV회의, TV강의가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제 정보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이 될 수 없고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의 공유는 힘의 집중에서 분산을 가져와 민주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를 모두 하나로 연결시켜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제 경쟁자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도처에서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안주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이 심해지면 더 많은 협

2) <노부호, "인간혁명과 경영창조", 삶과 꿈, 1999.4.>

력이 필요해진다. 이제 경쟁은 대립적 경쟁에서 협조적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대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이 일환이고 세계는 앞으로 국경없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갈 것이다. 이제 기업경영은 세계를 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정보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100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10년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술발전의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세계의 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즉시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미쳐 변화가 증폭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간의 경쟁에서 원가와 품질보다는 대응성과 융통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사회는 인간화를 촉진한다.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아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보다 가치있는 일을 함과 동시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받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가 인간적 경영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한다. 인간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자기혼자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촉진되고 있다. 전문화는 또한 자기영역 이외의 다른 것은 남에게 종속됨을 뜻한다. 전문화는 풍요한 사회를 만들고 이것은 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찾고 있다. 정보화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아이디어는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해 졌다. 정보화사회를 그래서 두뇌에 기초한 경제 (brain based economy)라고 부른다. 두뇌에 기초한 경제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약화되고 지식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3대 변화인 정보화, 세계화, 인간화를 우리 생활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다면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1:1의 관계로 심화될 것이고 고객들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경쟁에 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량계획생산(mass production)의 시대에서 대량고객생산(mass customization)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산업화시대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조사에 의한 수요예측에 기초를 두고 대량생산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판촉에 의해서 판매하는 밀어내기(push)전략을 구사했는데, 정보화시대는 고객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끌어 당기기(pull)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추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web site를 구축하여 고객이 쉽게 회사와 연결(interface)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에서는 이 분야의 관리를 고객관계관리 (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여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즈음하여 불교계도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여 신도 및 국민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접점관리(interface)를 강화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database를 구축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신도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고 추적하여 신도들을 욕구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분된 그룹 각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벽예불, 참선, 다도, 발우공양, 대장경인경, 선무도 등 다양한 가능한 활동들을 website에 올려놓고 신도들이 선택하여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세계화는 국제교류가 증가해야 함을 말한다. 한국 불교가 이점에서 타 종교인 기독교와 비교하여 크게 뒤떨어지는 분야이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신도들의 국제교류에 대한 욕구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이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Worldcup의 한 행사로 계획된 템플스테이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 수준을 격상시키게 되겠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 스님을 초청하거나 외국인이 한국사찰을 방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신도들도 외국사찰 또는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행 및 신행 프로그램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재가 신도들이 외국 불자와 유대관계를 맺고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화는 사람답게 살자는 의식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이다. 산업화시대에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소 같이 시키는 대로 일만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들어와서는 여유를 가지고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불

교가 내세우는 것이 자아발견과 정체성의 확립이므로 불교는 정보화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가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기내면 수행에 대한 관심사가 증대 될 것이므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장점을 살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님들이 좌선만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② 여가의 의미와 불교계의 대응

주 5일제는 여가의 확대를 의미한다. 여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자

여가란 자유를 의미한다. 이때의 자유는 어떤 것을 향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라 노동자에게 여가는 우선 그동안의 장시간 노동이 불러오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생활에 여가가 하나의 문화로 확립된 계기는 자동차 보급이다. 주 5일 근무는 여가 문화확립에 또 다른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여가 문화에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여가가 장시간의 노동에 따른 피로 회복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편향되어 근로자들은 여가를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으로 보내는 소극적, 수동적, 정적인 여가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성찰과 자아개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동적인 여가 의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이 처음 3개월 정도는 그동안 쌓인 피로로 T.V.를 보는 등 그냥 쉬게 되지만 그 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가는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자아개발을 위한 기회로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가는 놀이를 통해서 시간을 보낸다는 “시간 소비형”이 아니라 자아 개발을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 활용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가시간의 확대와 함께 여가의식이 바뀔 때 불교계에서 여가활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좋을 것이다.

신도들은 아는 스님이 없으면 사찰에 와서 자고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찰에 와서 사찰의 자연적이고 경건한 분위기에 젖는 것 만으로도 자기성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불교계가 주5일 근무제를 맞아 사찰을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기본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개발도 수행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수행을 처음 시작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일과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예절만 가르치고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불교에 보다 친숙하게 될 것이다. 수행의 수준이 높은 신도들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 철야정진과 같은 수련대회를 개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만족 하고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왔다 떠나게 되면 다시 불러 오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수행 프로그램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지금 단학선원, 국선도, 기천문, 요가, 아뵤타 등과 같은 곳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입체적으로 도입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에 문학, 예술, 과학 등 교양교육을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문학, 예술, 과학은 불교와 관련 되는 부분이 많아 프로그램에 도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채식, 단식, 한의학, 산책 등과 관련한 건강 프로그램도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도입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한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가 시간의 확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향락적소비 문화가 발달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소비 문화가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불교계가 국민 의식의 계몽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③ 불교계 현재 상황과 과제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 신도들의 욕구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참선에 치중하고 있고 일부 스님들이 환경보호, 통일 운동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신도들의 자기 성찰과 내면적 성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계기로 신도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결과로 불교가 신도들의 일상 생활에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있다. 출생, 백일, 입학, 졸업, 결혼, 장례 등과 관련된 불교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교 의식이 좀 더 현대화되어 신도들이 불교 의식을 경건하지만 동시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교가 신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직장 불자회 내지 지역 불자회를 활성화하고 스님들이 일대일로 관계를 맺어 각 직장 및 지역 불자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법회가 낮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직장인의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직장 불자회의 창립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불교계가 이 부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스님들도 참선 수행만을 강조해온 경향이 있는데 불교 의식이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도들과 생활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사섭의 정신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동사섭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불교신도들 사이에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 장례 등과 관련한상부상조의 관행이 기독교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주 5일제를 계기로 불교의 생활화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신도들의 수행과 신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도들과 일체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불교계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깨달음의 체계화이다. 깨달음과 관련한 스님들의 이야기는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과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깨달은 순간의 이야기를 난해한 오도송 등으로 말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깨달음과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깨달음에 이른 구도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말해 줄 수 있어야 불교의 생활화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깨달음을 의식의 성장 즉, 나 중심의 의식에서 자연과 우주중심의 의식으로 성장하여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의식을 단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까지 개발한 연구 David Hawkins,

Power vs. Force; The Hidden determinants of Human Behavior, Sedona, Arizona Veritas Publishing, 1995.가 있었는데 이것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불교의 생활화는 깨달음의 체계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인식이 요구 된다.

불교가 신도들의 일상 생활과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신도가 가꾸어 나가야 할 삶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도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 불교도 중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 5일제 근무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유승무(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1

주 5 일 근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하고 불가역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주 5 일 근무제의 제도화로 인해 우리의 생활양식이 바뀐다는 점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여가문화의 변화를 수반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또한 우리의 종교생활의 영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 5 일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반응은 민감하다. 주 5 일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를 입증한다. 안식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서부터 서구 교회 위기 논쟁,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지지 여부, 주 5 일 근무제에 따른 목회 프로그램 개발 문제, 나아가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노부호 교수님(이하 ‘필자’)의 논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럼, 필자의 논문을 요약해 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필자는 주 5 일제 근무제 도입의 배경과 그 의미를 논의하고(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 -> 개개인의 여가 확대 -> 생활양식의 변화), 주 5일제 근무가 사회경제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자세하게 논의한 다음, ‘주 5일 근무제의 결과 나타나는 주말여가를 보내는 국민들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불교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불교계의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찰 개방을 둘러싼 문제점, 건전소비문화 창달의 필요성, 그리고 불교계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간략하게 언급한 필자의 논문 중에서 특히 주 5 일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 그러나 논평자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 문화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사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주 5일제로 인한 여가 및 종교생활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준비사항과 대응방안은, 필자가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수없이 많으며 또한 그러한 것들은 모두 진지한 논의를 요하는 것들이다. 해서, 논평자는 주 5일제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2

무엇보다도 먼저 주 5일 근무제가 제도화되면 여가의 계층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계층에 따라 여가생활 양식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질의 여가 시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의 패턴화된 종교 생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란 점이다. 예컨대, 여가 부유층의 경우 신행의 관광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여가 빈곤층의 경우 기존의 여가시간까지도 여가 부유층을 위한 서비스에 빼앗기기 때문에 신행 활동 시간의 노동화 등의 문제로 신행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는 불교의 포교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반드시 기회인 것은 아니란 점이다. 모든 일이 본질적으로 ‘사람들 하기 나름’이듯이, 주 5일제의 경우에도 불교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신도의 ‘철세화(유목민화)’라 불릴 정도로 신도이동의 가속화, 사하촌의 유흥화, 보시금의 유흥비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주 5일제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과연 주 5일제로 인하여 종교생활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만약 발생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가 충분히 점검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변화에의 대응과 지속의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사찰의 적극적 개방이나 혹은 제한적 개방이냐’의 논쟁이 연동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로 행위 단위별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개개인의 의식 및 태도의 문제(적극적인 포교 의식 및 적극적인 서비스 개념), 개별 사찰의 공간구분(수행/신행/여가) 등 시설(청결성, 편의성 등) 준비의 문제, 교구본사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문제(기존 신행프로그램-철야정진, 성지순례 포함,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 각종 건강 관련 프로그램, 명상 관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그리고 종단 차원의 종합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안내 인력 양성/배치 문제(홍보 포함)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화재나 문화재 도난의 대비 등 관리상의 대응책, 세세한 생활규칙(청규) 마련, 수련 및 지도 인력 양성, 인터넷과 같은 정보체계 구축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넷째, 대외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가생활을 사찰에서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육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과 관련해서는 불교계와 문광부 등 정부 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당하고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불교(종교, 사찰, 승가, 문화재, 미술 등 상징)에 대한 홍보와 안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광학계 및 광공업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사찰의 입지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색깔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통사찰의 대응과 도심 포교당의 대응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한 각 사찰의 지리적 위치 및 환경, 역사적 배경, 상징을 비롯한 문화적 자원의 특성, 그리고 주석하는 스님의 개성 및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창조적으로 개발되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기존의 전통적 신행 프로그램과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여하히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주 5 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늘어나는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불교의 신행 시간으로 유도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불교계는 또한 사회적 약자나 여가 박탈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한국불교계의 신도들은 그동안 사회적 참여와 실천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또 그러한 신행 관행은 늘 비판의 대내외적 대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볼 때, 주 5 일 근무제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은 매우 긴급하다. 게다가 환경문제나 비인간화, 자기상실 등과 같이, 현대문명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불교계의 참여와 운동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일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주 5 일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발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일한 시간도 우리의 인식 여하에 따라 상반된 의미를 갖듯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여가시간으로 인식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계도 주 5 일제로 인해 늘어난 신도들의 여가 시간을 신행 혁신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건강한 여가활동 실천의 계기로 삼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만약 한국불교가 신도들의 늘어난 여가 시간을 전자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한국불교계에게 늘어난 여가 시간은 유의미한 시간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 5 일제로 인한 사회변화에 불교가 여하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불교계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한국불교가 근대화 과정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불교 저발전의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만약 주 5 일제로 인한 변화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에는 오직 파국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최소한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응방안

法 忍 스님(대둔사 수련원장)

1. 어떻게 살고 있는가?
2. 산사, 무엇이 매력인가?
3.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4. 맺음말

주 5일 근무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응방안

法忍 스님(대둔사 수련원장)

1.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라나시 거리에 야사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호의 아들로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날마다 애욕의 생활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유흥에 지친 야사스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잠들자 여자들도 지쳐서 모두 잠들고 말았다. 등불만이 환하게 밤을 지키고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 야사스가 문득 눈을 떠보니, 여자들은 여러 가지 추한 모습으로 정신없이 잠꼬대하고 몸부림치며 자고 있었다.

이것을 본 야사스는 “아아 싫다. 한심스럽다.” 라고 소리치며 지향없이 걸어가다가 녹야원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항상 하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야사스는 부처님 곁에 와서는 정신없이, “아아 싫다. 한심스럽다” 라고 되풀이해 외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은 “야사스여, 이곳에는 싫은 것도 없고 한심스러운 것도 없다. 야사스여, 여기 앉거라. 그대를 위해 법을 설해 주마”

최근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각계의 논의와 반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장의 당사자인 노동계와 회사측의 직접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종교계 역시 예외는 아닌 듯 하다. 재화를 생산하고 정신의 문제를 관심사로 살아가는 두 상이한 집단이 주 5일 근무에 관심과 반응, 논의와 대안 마련을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익 창출’, ‘변화에 따른 조화와 공존의 유지’, ‘삶의 질의 향상’ 등이 주된 이유인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계 역시 국민과 신도들에게 한결같고 성숙된 신앙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교세를 성장시키려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주 5일 근무제에 접근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여가와 생활의 변화에 따라 종교생활도 일정 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도심에 근거를 두고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기독교는 ‘우려’의 입장이고, 산사가 많은 불교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불교계의 입장은 주말에 산사에 참배하는 신도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관망에 머물고 있는 듯 하다. 만약에 이러한 인식이라면 그저 신도의 단순한 이동에만 국한 될 것이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교계의 대응은 교세확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실행과 문화를 제공하여 정신적 삶의 질을 성숙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전통사찰이 우리 이웃들에게 정신적인 귀의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읽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적절한 대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방은 사성제의 틀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변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사회인은 첫째, 4품와 8품의 틀에서 살고 있다. 생노병사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인생주기에서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사람들은 질병과 늙음, 죽음에 대한 불안을 내면 깊이 느끼고 있다. 또한 愛別離苦, 怨憎會苦로 大別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고통을 늘 겪고 있다. 그리고 求不得苦라는 인간의 과욕이 빚어내는 갈등, 생산과 분배와 소유의 불평등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또한 감각적, 본능적, 말초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五陰盛苦의 고통이 있다. 4고와 8고로 대별되는 고통은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사찰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고통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인생주기에 따른 삶의 불안과 욕구를 읽어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지식과 기능의 과도한 축적에 시달리며 감성과 창조적 사고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중년기의 사회인은 재산의 형성, 가족의 부양, 직장에서의 위상 확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장년기와 노년기에서는 건강, 장래에 대한 불안, 내면세계의 허무와 고독 등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인생주기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읽어낼 때 그에 따른 적절한 안식처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개인화. 핵가족화. 전문화. 자본화 사회에서 오는 삶의 사회적, 문화적 병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삶의 틀은 경쟁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관점과 맥락에서 몇 년간 대둔사 참선 수련회의 참가 신청서를 참조하면 현대인의 사고와 감정을 단순하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다.

① 心身이 복잡하고 피로하다. ② 인간관계의 구조와 갈등에서 놓여나고 싶다 ③ 소음과 정보에서 벗어나고 싶다 ④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 ⑤ 인생의 본질을 찾고 싶다 ⑥ 생활의 나쁜 습관과 감정을 다스려 보고 싶다 ⑦ 자연에서 감성을 회복하고 싶다. ⑧ 참선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익히고 싶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다스리고, 현실에서 마음을 잘 쓰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 모든 수련생들의 공통적인 바램을 음미해 보면 인간이 가지는 존재론적이고 사회현실적인 갈등과 고통,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순과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사찰과 도심 포교당에서는 이러한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과 바램을 정확히 파악할 때 특성에 맞는 방편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 산사, 무엇이 매력인가?

한국사회에서 산에 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 차원에서 매우 깊은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절이 산에 있으므로 산이 지켜지고 자연과 정신이 하나로 조화되고 사람들은 산과 절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경제와 문화의 성장 속에서 정신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문화 마저 경제적 상품이 되고 있는 풍토에서 전통 사찰인 산사는 심신의 휴식과 자아 성찰의 도량으로서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6.25 전후를 계기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놀이 관광 - 유적지 관광 - 정신적 안정과 자아 성찰로 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보면 산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은 그 자체가 심신의 안정과 감성의 회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온갖 공해와 소음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신의 휴식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 보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옛말에 ‘금강산에 들어가 수도하면 탐욕심은 그저 저절로 내려 놓고 수행한다’는 말이 있다. 바람직한 객관 환경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줌을 의미하고 있다.

사람의 생각과 감성이 변하는 것은 그저 주관적인 마음의 일방적인 움직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의지(眼耳鼻舌身意의 六根)와 환경적인 제반 요인(色聲香味觸法的 六境)의 조화가 있을 때 진정한 성찰과 바람직한 변화(六識)가 일어나는 것이다.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각종 모임 등 외적인 요인의 일방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을 현대인은 가지고 있다. 설령 가족과 친지, 동료들과 여가를 이용하여 놀이와 여행을 가더라도 운전하면서 이동의 피로와 음식과 유흥의 틀에 갇혀 피로와 스트레스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시간은 짧게, 음식은 간소하게, 생각은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곳으로 산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록색이 70퍼센트 이상일 때 사람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다는 말이 있듯이 산에 있는 모든 것 감성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성으로 체득하게 해주는 일은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최고의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아름다움을 감성적으로 흡수하면 인간의 마음이 진실과 선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산사의 일상 생활 자체가 주는 교육과 감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잠자리 문화, 채식하며 적게 먹으며 남기지 않고 한 톨의 음식에도 만인의 노고를 생각하는 음식 문화, 되도록 침묵하며 단순하고 느리게 생활하는 문화 그 자체가 세속 사회의 과다한 소유와 집착과 무절제를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목탁소리, 범고소리, 범종소리, 물소리 들으며 예불하고 기도하고 차 마시는 생활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셋째, 산사는 풍부한 역사 사료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주변의 모든 문화 유적까지 포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자칫 우리가 소홀히 하면 산사가 지닌 약점 또한 있을 수 있다 하겠다. 흔히들 산사에 가면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교통의 문제, 숙소와 부대시설의 문제, 비용의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산사의 대중들이 산사를 사회인에게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평안과 행복의 안식처로 제공해준다는 간절한 원력만 있다면 위의 문제들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모든 전통 사찰이 항상 산사를 개방한다면 교통의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숙소와 부대시설 또한 불편하지 않게 시설하면 그만이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주말에 산사를 개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예상 된다.

첫째, 산사의 출가대중과 재가대중(사찰 근무자)의 마음가짐과 정성이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사회인들의 다양한 삶의 구조와 그에 따른 갈등과 불안, 고통을 동체대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최소한 자상한 분위기와 진심어린 정성만으로도 우리 이웃들이 힘을 얻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주말에 산사에서 쉬는 사람 정도로 인식한다면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둘째, 산사 대중이 실제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如是語者’ ‘如是行者’라는 말이 있듯이 산사대중의 견해가 바르게 서야 하며, 나아가 의식주에 검박함과 절제가 있어야 하며, 언행에 지혜와 자비로움이 넘쳐야 할 것이다. 이른바 말로 설법하지 않고 사는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설법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돈에 부담을 갖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돈의 문제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주 받는 자와 시주 하는 자, 시주의 내용이 청정하고 정성스러우며, 나아가 부담이 없는 기초를 유지하면 된다. 출가자는 당연하게 신도에게 법과 安心立命을 주어야 하며, 재가자는 당연하게 밥을 주고 법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의무규정이다. 다만 삼륜청정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고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3.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제, 산사가 현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나는 산사를 개방하여 심신이 지친 현대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산사는 부처님의 법의 정신에 입각한 수도와 교화의 도량이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산사의 대응 또한 ‘법의 정신의 구현’이라는 틀과 방향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 하면 신경안정제와 이색 체험의 숙박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이른바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확립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緣起’와 ‘無我’와 ‘中道’의 길을 체득하고 걷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현대인들의 모든 존재론적 고뇌와 사회현실의 구체적인 불안과 고통도 연기. 무아. 중도의 삶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별과 차별, 경쟁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모든 존재를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으로 보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중도적 삶의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

自作他作中道. 斷常中道. 一異中道. 有無中道. 苦樂中의 기본 전제 아래 현대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에서 연기론과 무아론에 입각한 중도적 실천의 삶의 유형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① 몸과 정신의 중도 ② 이상과 현실의 중도 ③ 노동과 수행의 중도 ④ 인간과 자연의 중도 ⑤ 지혜와 정보의 중도 ⑥ 이성과 감성의 중도 등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사에서 수련하는 주제는 진지 하되, 일과와 내용은 여유있고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휴식 한다는 인식도 극복해야 하며, 또한 행자교육이나 선원 같은 인식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들에게는 ‘마음을 깨닫는’ 것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쓰는’ 데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사회인은 출가대중과 달리 생활의 주기와 생활의 내용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생소하고 전문적이며 힘든 일과와 내용은 부담을 주기 쉽다.

대둔사 주말 열린 수련회 ‘새벽숲길’은 이러한 취지와 맥락에서 내용과 일정이 짜여져 있다.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초대의 글 -

대둔사 주말 열린 수련회 '새벽숲길'의 山門을 열며

여기, 한 생명의 호흡이 고요히 깨어 니다.

밤하늘의 별빛 달빛 기운을 받아 감로의 이 을 머금은 풀꽃이 몸을 고,
산새는 천상의 미묘한 음악을 토해 니다.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사각거리는 대숲바람이 정신의 새벽을 흔들고,
른 이끼 인 바위 틈새를 지나 흐르는 계곡 물소리가 청정한 성품을 일으켜 세 니다.

새벽산사, 한 생명의 근원이 고요·청정·평화의 삼매에 니다.
지극한 아름다움은 지극한 진실입니다.

이제 산빛 물빛 은 순수한 마음의 손길을 내밀어
산문의 빗장을 열고 새벽숲길의 투명한 빛을 맞이합니다.

랑이 울려 지는 목탁소리에 어두운 마음 내려 놓습니다.
천지간을 깨우는 범고소리에 내면 속속 깊이에서 차 오르는
새희망의 힘을 얻습니다.
만물의 원음으로 울리는 범종소리에 소유와 집착의 을 풀고,
함이 없고 걸림없는 자유와 안락의 마음을 얻습니다.
다정다감과 벅들과 차 한 을 나누며
따 한 눈빛과 감성의 언어를 교감합니다.

서산대사의 禪思想과 초의선사의 차향기 그 한
땅끝마을 두륜산 대둔사, 그 원시의 새벽숲길.

이 길은 문이 없는 길이므로
모두가 오는 길이며,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한 생각 고요히 내려 놓고, 참사람의 향기로
살고자 하는 모든 벗들에게 이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두륜산 대둔사(대홍사) 대중 합장

- 대둔사 주말 열린 수련회 모집 안내 -

언제 : 4월 26일(금) - 28일(일) , 1박2일 2박3일 모두가능

모집인원 : 30여명 내외

대상 : 참사람의 향기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

- 모 집 요 강 -

1. 주말 열린 수련회 '새벽숲길'은 진지하고 여유로운 내용과 일과로 진행됩니다.
2. 참가신청서를 4월 21일까지 전자우편(daedunsa@hanmail.net), 전송(061-535-5357)로 신청합니다.
3. 참가신청서에는 이름, 불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 메일, 스 직업, 종교, 수련경험, 참가소견, 대둔사 도착 예정 일시를 기록합니다.
4. 가족이 신청할 때에는 정확한 개인 신상과 관계를 자세히 기록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자녀는 초등학생 이상 동반이 가능합니다.
5. 정원 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료 참가 가부를 결정하며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부득이 참여를 허락 받지 못한 분은 다음 기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7. 동참 가부를 4 월 22 일 까지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8. 대둔사 도착 일시는 금요일 오후 8 시까지이며(2박 3일) 토요일 오전 10 시까지(1박 2일) 동참이 가능합니다
9. 동참금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기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금 을 수련원 불전함에 보시하시면 됩니다.
10. 문의처는 전화 011-636-3597(예중 기획과장), 061.- 535- 5775, 페이지 daedunsa.org입니다.

- 새벽숲길 일과표 -

* 자유정진에는 독서, 사경, 기도, 절, 좌선, 산책 등이 있습니다 *

첫째 날 (금요일)

20 : 00 등록(종무소)

20 : 30 사찰예절 습의. 자기 소개.

21 : 00 세면 취침

21 : 30 취침

둘째 날(토요일)

03 : 00 기상. 예불. 108배

04 : 40 좌선

05 : 10 새벽숲길 산책

06 : 00 아침공양. 청소

07 : 00 스님과 차 마시며 대화

08 : 00 자유정진

11 : 00 입제식

11 : 40 점심공양

12 : 30 자유정진

16 : 30 목욕. 세탁

17 : 40 저녁공양

18 : 30 예불

19 : 00 진리의 말씀 독송, 수행일기 쓰기.

21 : 00 취침

셋째 날(일요일)

03 : 00 기상. 예불. 108배

04 : 40 좌선

05 : 10 새벽숲길 산책

06 : 00 아침공양. 청소

07 : 00 스님과 차 마시며 대화

08 : 00 자유정진

11 : 40 점심공양 및 세탁

14 : 00 회향식

- 수련생 준비물 -

1. 수련회 기간 동안 입을 수련복은 우리 (개량한복)을 개인적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단, 적절한 이 없을 때는 대둔사 수련복을 지급합니다.
2. 신발은 제한하지 않으나 경내 분위기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산행에 적합한 신발, 세면도구(일회용 금지), 일기책과 필기도구, 우산 등을 지참합니다.
4. 이불과 개는 대둔사에서 지급합니다. 단, 가정의 이불 도구를 가져와 사용하셔도 됩니다.

- 수련생 청구 -

1. 절에서는 가능한 침묵하며, 단순하고 느리게,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조화롭게 합니다.
2. 모든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예불 공양 108배, 좌선 새벽산책 수행일기 쓰기는 모두가 엄수해야 하는 일과입니다.
3. 연령에 관계없이 존경어를 사용하며 호 은 00 범우님으로 합니다.
4. 세속의 잡사(정치, 연예 등)를 화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신문, 주간지, 잡지 등을 지참하지 않습니다.
5. 타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6. 술 담배는 절대 금하며, 간식은 하지 않습니다.
7. 법당 앞을 지나거나 스님들을 만날 때는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8. 취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개인의 종교나 생활습관을 내세워 수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9. 낮잠은 1 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10. 자유 정진시간일지라도 안내암자에는 머물지 않으며 절에서 정하는 수련 구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지도법사는 퇴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진지하고 여유롭게 진행하며,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다. 예불, 108배, 좌선, 독서, 사경, 기도 등을 통하여 연기, 무아, 중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새벽길 산책, 차 마시기, 등산 등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쉬고 감성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대둔사는 ‘새벽숲길’이 정착되면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산사를 벗어난 프로그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산사의 분위기 속에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며 자신을 성찰하는 기조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주변 문화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도심 포교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에서 각 산사가 나름대로의 특성만을 가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종교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 변화에도 반드시 유지할 것이 있으며,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변용해야 할 것이 있다. 성급하게 시류에 영합하여 본류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세 유지와 확장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행과 정신문명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행동이 요구된다.

문화의 변화에 따라 포교 방법에도 이에 맞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산사에서는 오로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관념과 포교당에서는 포교공간으로서 법회만을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산사에서 포교를 행하고, 도심 포교당에서도 수행정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비하여 교통의 발달과 일반인들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화 등이 그 주요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변화일 것이다. 이는 포교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사가 사회인을 위하여 문을 열 때 우리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 문화가 됨과 동시에 산사의 기능과 역할에도 근본적인 대안을 줄 것이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전통사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지현스님 (종회의원, 청량사 주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주 5일 근무제는 우리의 사회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시간의 축소만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의 변화는 물론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틀간의 휴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활동이 확산되고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이틀간의 여가를 활용하여 자기 계발, 취미활동과 같은 ‘또 하나의 나’를 가꾸는 일에 몰입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대응하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종교 간의 이해는 물론 불교 내적으로도 대응 방안이 상이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입장이 다르고, 불교 내적으로도 도시사찰과 전통사찰의 대응방식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인 스님의 발제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현대인들이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산사의 프로그램 제시한테서 매우 시의 적절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발제문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관망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며 교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신행 문화를 제공하여 정신적인 삶의 질을 성숙시켜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바램을 정확히 판단하여 특성에 맞는 방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산사가 가지는 강점과 사찰을 개방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지적하고 있으며 중도적 삶의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과 주말 프로그램이 주제는 진지하되 일과와 내용은 여유있고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스님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대둔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말 열린 수련회 ‘새벽숲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주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사찰의 스님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주 5일근무제의 시행을 앞두고 전통사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발제문에는 대둔사에서 준비하는 단일 프로그램만 제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사찰이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될 때 전통 사찰이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위 사찰이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근 지역의 사찰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찰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사찰과 사찰(말사와 말사)의 연계 프로그램, 본사와 말사의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도시사찰과 전통사찰의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단위 사찰 차원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 사찰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그 사찰의 강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단위 사찰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사찰이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사찰로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과 별도의 기획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모두가 사찰에서 상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물론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해도 딱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생활 속에서 시간에 얽매어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 상태를 절에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법인 스님도 강조했듯이 주말 프로그램은 편안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예불과 공양시간만 알려주어 그 시간만 준수하게 하고 스스로 분위기에 맞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찰이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연령별, 모임별, 가족별, 직장별, 친구별 등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청량사의 경우 월 1회 주말 수련회를 마련하여 대학생 - 직장인 - 4,50대 - 가족 단위 수련의 순으로 순환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도청과 연계한 무박 기차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철도청에서는 70명 정도의 인원이면 기차 1량을 빌려준다. 금요일 밤 11시에 서울을 출발하면 영주에 토요일 오전 3시에 도착한다. 이들을 버스로 청량사까지 이동시키면 아침 예불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게 된다. 참가자 모두가 함께 예불을 하고 6시까지 강의나 법문, 작은 음악회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6시에서 8시까지 간단한 산행을 하고 8시에 공양을 한 후 모임별로 문화기행이나 자유시간을 갖고 오후 3시에 영주를 출발하는 기차를 타면 서울에 7시30분에 도착하고 늦어도 9시까지 귀가하여 일요일을 쉰 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박2일 프로그램은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련생을 유치하는 방안 이외에도 1박하면서 공양과 예불만 하고 편안히 하루를 묵어가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최대한 말을 자제하는 가운데 자연과 교감하는 것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특화할 생각이다.

사찰과 사찰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적 연계를 통해 주말을 효율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량사의 경우 봉화와 인근한 영주의 부석사나 안동 봉정사, 본사인 고운사 등의 사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 청량사에서 하루를 묵으며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다시 이들의 사찰에서 실시하는 문화답사 프로그램이나 수련프로그램을 함께 하도록 준비한다면 여행과 문화답사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도시인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지역 사찰간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는 가급적 피해야 하고 단순한 관광여행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도시사찰과의 연계이다. 도시사찰 역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지역의 전통사찰과 협의하여 적절한 주말 수련회나 성지 순례를 개최한다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타격을 적절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동시에 각 사찰이 자신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불교계가 준비하는 주말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과 산사의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이 향후 새로운 정신문명의 대안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심사찰의 대응방안

심산스님(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1. 들어가는 말

2. 몇 가지 기본 방향과 해결방안

- 1) 기존의 범회와 기도등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 2) 프로그램개발은 도심사찰에서, 실행 장소는 전통사찰을
- 3) 도심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4) 지역별 자매결연 사찰 갖기
- 5) 대 사회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여가선용 방안
- 6) 불교 이외의 문화적 접근방법제시

3. 현재 하고 있는 기본 행사

- 1) 연중행사
- 2) 계절행사
- 3) 월중행사
- 4) 주중행사
- 5) 특별행사

4. 맺음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심사찰의 대응방안

심산스님(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

1. 들어가는 말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인터넷시대를 실감하면서 자칫 종교의 위기감마저도 느끼게 하는 종교의 무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의 행동은 없고 가상세계에서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동시에 자연과는 동떨어진 문명과 기계와의 세계에 마음이 팔려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종교생활의 변화 또한 우리 앞에 던져진 현실의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절대적 생존의 문제라면 이제는 상대적 생존의 모습에서 삶의 질을 논하는 문화적인 세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불교는 어떻게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속에 도심사찰은 신행의 편리함을 이점으로 꾸준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시간적 제약을 받는 도시인에게는 유익한 신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산중 불교를 생활불교로 정착시키는데 큰 몫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의 여유로 다소간 관심이 자연환경이 유리한 산사로 향할 수 있다.

이제 현실로 다가온 주 5일 근무제의 사회변화에 도심사찰도 또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몇 가지 기본 방향과 해결 방안

1) 기존의 법회와 기도 등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기존의 형태가 하루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큰 변화는 있겠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 우리 생활의 패턴 또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휴일에는 먼 거리를 갈 생각도 못했지만, 금요일 밤부터 휴일이 시작되면 이제는 우리나라 어디든 여유 있게 다녀 올수 있는 시간 개념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는 예상은 피할 수 없다. 부산에서 강원도의 어느 사찰을 갈려면 지금까지는 엄두가 나질 않던 것이 이제는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서 이들 휴무가 정착이 되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접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면이다. 물론 검소하게 여행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매주 어디론가 떠나기는 힘든 일이다. 둘째는 교통의 혼잡이다. 자동차의 물결이 넘치면 이내 짜증스러워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리고 셋째는 문화적으로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리라던 예상도 얼마가 지나지 않아 그 나름의 평온을 되찾고 안정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주 5일 근무제도 또한 얼마간의 혼돈이야 있겠지만 오히려 도심 안에서의 경제적 여가 선용에 초점이 맞추어지리라고 본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껏 해오던 본분으로서의 사찰고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분위기에 들떠서 요란한 대비를 하기보다는 차분히 가라앉아 기도하고 정진하는 불자 본연의 모습을 주로 삼고, 부수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고 본다.

초하루나 보름 등의 법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될 경우, 전통절로 가든 도심의 가까운 사찰에 오든 불자의 근본은 수행이며 곧 마음공부라는 것을 먼저 전제한다면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것만을 쫓는 신행형태보다는 평상심의 연장선상에서 신심을 키워가는 노력이 중요하리라 하겠다.

자칫하면 꾸준하고 성실한 신행보다는 호기심과 흥미위주의 단발적인 신행으로 불교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 개발은 도심사찰에서, 실행 장소는 전통사찰을 이용

*.신도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강함이 도심 사찰의 장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찰순례 및 산사의 기획행사에 동참

결국은 원찰을 중심으로 한 신행형태가 중심이 된다는 이런 전제가 가능하다면 도심 사찰은 항상 접하는 신도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신심을 증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가령 절의 성향에 따라서는 염불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고 염불수행에 관심이 많은 신도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마음공부가 제일이라고 해서 참선을 좋아하는 신도들이 주류를 이룰 수도 있다. 또 이론으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없는 즐거움이라고 여겨 강의나 법문을 듣는 것이 낙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모일 수도 있다. 꼭 어떤 한 가지 분야의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해도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라 신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그 절의 신도들의 수준에 맞고 전체의 다양한 가르침에 형평을 맞추는 범위에서 1박2일이나 2박 3일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은 가장 효과적인 산중 사찰을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싶다. 도심사찰의 메마른 환경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진행되는 같은 절 식구들의 기도나 수련은 또 다른 멋과 신심을 내기에 충분하다.

지금껏 우리는 연중행사로 봉정암이나 3대 보궁기도를 진행해 왔고, 시민 선원에서는 제방을 찾아 용맹정진을 다녀왔다.

가. 봉정암 보궁기도

봉정암으로 떠나는 2박 3일의 경우 개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첫째 경제적인 면에서 큰 절약을 할 수 있다. 혼자나 가족단위로는 엄두도 못내는 비용으로도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움직이는 인원이 많으면 안전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심이 되는 이점을 들 수 있다. 보통 여섯 시간을 계산하는 산행에 낙오하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갔다가 줄지어 내려오므로 그만큼 큰 위안을 받는다고 했다.

셋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기도 동행이라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봉정암을 가는 것을 연중행사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진행도 이렇게 한다. 버스를

타는 시간동안은 불교방송에서 만든 고승열전 테이프를 통해 큰스님 한 분의 일대기를 다 듣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나. 3대보궁기도

3대보궁기도의 경우는 1박 2일로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범홍사, 오대산 중대를 다녀온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보궁에서 우리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평상시 하던 혼숙된 방식으로 철야기도를 할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

다. 선원 용맹정진

선원도 태안사와 백양사, 갑사 등으로 용맹정진을 다녀왔다. 시민선원에서 정진하는 보살님들이 산철을 이용해서 산사의 선원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곳 선원의 배려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30명의 보살님들이 출가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떠나 산사의 전통적인 선원으로 가면 그곳에서 입승 스님이 맡아 지도해 주시는 것이다. 범문과 경책, 그리고 같이 정진해 주시는 경우에 모두들 환희심으로 돌아와 더욱 신심내서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라. 1080배 참회기도

지난 3년간 우리는 경주 남산의 부흥사에서 1080배 참회기도를 원만히 거행했다. 많은 인원이 절하기에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금강회 거사님들의 수고와 부흥사의 전폭적인 배려로 신심 나는 참회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밤 8시에 부산을 출발해서 남산에 도착하면 한 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부흥사에 도착한다. 봄, 가을이야 더 없이 좋은 분위기이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만만치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떠난 산사에서의 기도를 모두들 좋아 했다. 그리고 새벽 예불 후에 부산으로 돌아온다.

이런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도심 사찰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기획하

고, 가장 적절한 장소로 산사를 선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묘안이 나올 수 있다.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가령 보궁기도의 개념으로 장소를 선정해도 좋고, 참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다. 또, 문화나 경치 좋은 곳으로도 가능하고, 관음기도 도량 순례나 지장도량등 인연 있는 도량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산사로 떠날 수가 있는 것이다.

3) 도심사찰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점은 산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 나름의 독특한 행사를 찾아야한다.

도심사찰도 산중의 사찰 못지않은 매력이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최대의 자원인 사람이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도심에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던 것이 있으리라고 본다.

먼저 도시의 장점은 인간관계나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제일 중요한 장점이고 넘치는 정보가 바로 힘인가 하면, 경제력이 수반되는 여유 있는 넉넉한 곳이 도심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웠던 몇 년 사이에는 오히려 도심사찰이 유지하기에 덜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도심 사찰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가. 불교대학이나 교리공부과정

직장인이나 초심자를 위한 교리공부시간인데 이제는 여유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배우는 불교공부는 현대인에게는 중요하다. 여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러는 토요일 아침에 공부하는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것도 좋지만, 모셔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 장애인법회

사람이 많이 살다보면 소외된 장애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불자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에

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좋은 포교라 할 수 있다. 산사까지 가기 힘든 맹인불자들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재 우리도 월1회 맹인과 농아가 함께 법회를 보고 있다. 농아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맹인은 거동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주 5일 근무제는 시간의 여유가 많다. 토요일은 법당에서 함께하는 날로 정하면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교류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다. 외국인을 위한 우리문화 기행

주 5일 근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므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절실할 수도 있다. 우리문화와 생활 그리고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전문 안내의 설명이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문화 기행은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다. 우리 포교원에서는 월1회 실시하고 있는데 항상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고민이었다. 당일 몇 시간만이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1박 2일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소한 도시마다 한곳씩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라. 청소년 법회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법회를 활성화 하는 일이다.

앞으로 학생들도 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법회이다. 어린 시절의 불교에 대한 종교적 정서 함양은 인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철야 및 사찰순례를 통해 불교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서 계획성 있는 법회를 진행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다 하겠다.

마. 가정법회

도시의 밀집한 공간에서 서로의 가정을 돌면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안택을 겸한 가정법회는 신행의 또 다른 의미이다. 절의 신도 간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각각

의 사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집안 어른들을 뵙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등 보다 가깝게 한 가족처럼 느껴진다.

옛날의 시골 분위기를 느끼는 동시에, 각박한 도시의 환경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는 낮에 2곳, 밤에 한곳에서 가정법회를 하고 있다. 낮에는 보살님들이 하는데 오후 2시라서 기도 후 간단한 다과만을 준비한다. 밤에는 거사님들이 퇴근 후에 하므로 저녁7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조촐하게 비빔밥을 준비한다. 이제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바. 대입수험생을 위한 법회

수험생을 둔 가정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때 절에서 수험생들을 모아 용기와 희망을 주는 수험생을 위한 법회를 한다는 것은 수험생에게나 가족에게나 큰 위안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대입기도자체가 불교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원의 형태가 아니라 수행의 형태로 분위기를 이끌면 대입기도도 불자를 만들고 불자를 수행하게 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기복만이 아니라 기복을 넘어 수행과 업장소멸의 장으로 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실제로 바쁜 일정을 살고 있는 수험생이 산사까지 찾아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쉽고 가까운 절에서라도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도심사찰의 몫이다. 우리 포교원에서는 매년 2월 하순에 예비 고3수험생을 위한 법회를 하고, 7월말쯤에는 수능 100일전 법회를 해 오고 있다. 이때는 학생만을 위한 법회이다. 수험생들에게는 지금껏 소홀하던 종교심이 극도로 간절해져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처음 맺는 경우가 많다.

사. 성년의식

요즘 들어 성년의식이 많은 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물론 불교적인 행사는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는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년의식이다.

유교의식인 성년의식을 불교적 보화응동(普化應同)의 원리로 승화해서 불교행사로 정착하면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에 뭉클한 감동으로 기억되는 일이라 여겨진다. 삶과 종교가 둘이 아니다. 주 5일 근무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도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 서술 했다.

이상과 같이 인구가 많은 도시는 그 나름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때는 인간의 삶과 하나 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4) 지역별 자매결연 사찰 갖기

*.도심공동화 대처방안

*.타 지역의 사찰들과 연계 및 개인교류의 한 방법

도심사찰의 한계는 자연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별장 같은 자연속의 시골정취를 은근히 염원하고 있다. 특별한 인연이 있어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고향 같은 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사찰과 전통의 산중사찰이 자매결연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으리라고 본다. 도시는 시골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산사는 도심에 의지해 현재를 이해하므로 해서 함께 공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한 절에서 지역마다 한 두 사찰을 지정해서 서로 교류한다면 큰 장점이 있으리라 본다.

가령 예를 든다면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있는 통도사부산포교원이 전국 각도나 명산에 있는 사찰들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면 신도들은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기도처를 하나씩 더 가지는 셈이다.

그래서 산중 사찰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산사가 가지는 인원동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심 사찰이 가지는 공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산사가 그만큼의 객관적인 숙박공간을 갖춘 기도도량이라는 공감감이 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도심사찰은 전국의 산사가 가지는 모든 행사를 취합해서 신도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결국 도심사찰을 원찰로 삼으면서도 산중의 사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대 이익을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산사의 좋은 행사를 홍보 하므로 서로 연대 및 보완관계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한다.

5) 대 사회적인 자원봉사활동과 여가선용 방안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봉사를 가족단위로 실천

*.자원봉사의 의미를 재인식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주 5일 근무제로 시간이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휴식이나 기도의 개념만 강조할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산으로만 신도들을 유도할 일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불자들이 해야 할 시대적 역할에 대해서도 준비해야할 부분이다.

지금은 평일 낮에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휴일에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도록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인생의 참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이나 양로원 고아원등에 일일봉사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봉사내용도 단순한 것에서부터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개인의 능력 범위에 맞추면 된다. 또한 농촌의 일손 돕기도 가능한 일이다. 농촌이나 시골을 레저나 휴식의 공간으로만 여길 일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찾는 여행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다.

가. 온가족이 함께 하는 주말농장

우리도 작은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신도들이 모두 좋아 한다.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좋아하고 어른들은 고향같이 느끼고 있다. 도시에 살면 자연과 더불어 인생을 배우게 해주는 너무나 큰 스승인 흙이 그리운 법이다. 그런 신도들과 더불어 주말농장을 마련한다면 신도관리와 유익한 여가선용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함으로서 보다 유익해 진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족이 함께 일구어가는 노동과 화합의 교육장이 될 주말농장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수확보다도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무공해 계절 채소와 행복을 수확하면서 맘의 소중함도 배우게 된다.

나. 병원 환자돌보기 봉사활동

현재 우리는 부산 보훈병원에 법당을 운영하면서 환자 목욕시키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물론 여기는 국가 유공자라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러다보니 장기입원환자가 많다. 그분들에게 목욕시키는 일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족단위로도 가능한 일이다.

다. 시민운동

불교와 불자의 이름으로 대 시민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과 더불어 하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앞장서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은 불교에도 NGO 활동이 활발하지만 지방으로도 더 확산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을 선도해가는 불교여야 한다.

라. 농촌 자원봉사

농촌의 마을과도 연계하면 농번기와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농사일을 아는 분이 있는 편이다. 이제 얼마만 지나면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따라서 농촌의 일손도 거둬고 농사일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6) 불교 이외의 문화적 접근방법 제시

*.문화를 방편으로 활용

*.취미모임활성화, 합창, 다도, 사진, 등산, 답사

포교의 방법은 무궁하다. 목탁을 치며 염불하고 법문을 듣는 것만이 포교의 전부가 아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적인 접근방법도 이 시대에는 좋은 포교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통도사 부산포교원에는 문화관이라는 공간과 신도조직을 만들어 문화적인 접근과 취미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처음에도 밝혔지만 이들의 휴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초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도심에서의 여가선용을 생각해야 한다. 도심에서는 전문 강사 모시기가 쉽기 때문에 여건이 좋고, 실습이나 활용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수 있어서 좋겠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관심거리인 환경이나 자연을 관찰하는 모임, 취미 사진반, 건강을 생각하는 등산이나 문화유적이나 불거리를 찾아 떠나는 답사 등은 우선 도시에서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어 예비지식을 충분히 갖춘 후에 야외로 움직이는 것이다. 45인승 버스라도 현대씩 구입해서 항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절약하는 여가선용이 될 수 있다.

가. 등산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등산모임을 만들어 주변의 산들을 돌아가며 등산하는 경우를 본다. 우리도 초기에 달빛산행이라고 해서 밤에 산행을 해왔는데 호기심에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렇다면 신도 간에 등산 회를 만들어 등산과 사찰순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시간에 쫓기던 불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다 얻는 셈이다.

나.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

개인적으로는 취미생활의 연장일 수 있지만 불교로 보면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늪지나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모임이다. 청소년이나 학생에게는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 문화유적 답사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은 한계도 있고 전문지식도 부족하므로 사찰에서 전문적으로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대광불교대학에서는 경주 남산을 비롯해서 전라도 쪽의 부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어찌면 눈으로만 보고 올 수 있었을 문화 유적을 세세히 설명 듣고는 적지 않게 감동하는 모습이었다.

라. 기타

다도, 사물놀이, 사진, 서예, 바둑등 다양한 문화활동

다시 말해서 신행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문화적인 관심이 큰 만큼, 절에서 만난 신도들이 함께 문화유적과 생태계에 관심가지고 결속하는 것이 포교와 사회참여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3. 현재 하고 있는 기본행사

우리는 현재 일년 중에 정기적인 행사를 따져보면 하루에 한개는 기본이고 보통 두 개의 행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기행사가 1년으로 보면 천여 개를 헤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실행되는 것이, 따로 어떤 형태의 행사를 만드는 일 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이유로든지 불자는 매일 법당에 들릴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드는 일이 스님들의 역할이다. 그럴 때 신행이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다만 기존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던 것을 어떻게 시간대를 조정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1) 연간

- (1) 정초기도--음력 정월 초이틀부터 칠 일간.
- (2) 방생(대중공양)--이름은 방생이지만 물고기 방생은 하지 않고 선원 대중공양.
- (3) 입춘기도--입춘날 삼재기도 봉행.
- (4) 예비 고3 수험생을 위한 법회--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학생을 위한 법회.
- (5) 출가에서 열반까지--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8일간 사경 및 자비도량참법기도
- (6) 신행학교--신도기본교육과정(주2회 3개월). *.야간은 주1회 6개월 진행.
- (7) 대광불교대학--포교사 과정 및 중급 신도 교육과정(주2회 1년)
- (8) 해군사관학교 졸업법회--임관하는 생도 환송 및 입학하는 신입생 환영법회 동참
- (9) 화전놀이--음력 3월 3일에 야외에서 화전놀이.
- (10) 부처님오신날--초과일 행사.

- (11) 성년의식--20세가 되는 청소년과 부모가 동참하여 치르는 불교식 성년의식.
- (12) 개원기념법회.
- (13) 백중 영가천도--49일간 기도 및 천도의식. 법문.
- (14) 청소년 여름. 겨울수련회--초 중. 고생을 위한 수련회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진행.
- (15) 대입 수능 100일전 법회--8월초에 수험생을 초대해서 법문과 선물을 증정.
- (16) 봉정암 기도--9월중에 2박 3일간 진행.
- (17) 3대 보궁기도--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범홍사, 오대산 중대를 1박 2일로 다녀옴.
- (18) 대입 반백일기도--50일간 자비도량참법 및 관세음보살보문품 사경.
- (19) 수능 시험 후 특강--수험생을 위한 특강 및 야외법회.
- (20) 송년의 밤--12월 중순 일년을 마감하며 전래놀이 한마당.
- (21) 성도재일철야--음 12월 7일 밤, 신년 하례 및 철야정진.
- (22) 한해를 보내는 재야의 중 타종행사--법당에 타종 후 새해일출

2) 계절

- (1) 기초선원--여름, 겨울 3개월씩(초심자 참선지도 ;목요일 오후 7시)
- (2) 달빛산행--봄: 창녕 화왕산 진달래축제 여름: 양산 홍룡사 폭포 가을: 겨울: 문화기행--봄:차만들기. 여름: 연꽃구경. 가을: 단풍. 겨울: 눈꽃축제

3) 월간

- (1) 초하루기도--신중기도(3일간)
- (2) 지장재일--3년 지장기도 및 천도(음,18일)
- (3) 관음재일--자비도량참법 1권씩(음,24일)
-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밤 10시 30분부터 입장,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양,1.2.3일)
- (5) 팔공산 갓바위--음력 7일밤 9시 출발(주관: 문화관)
- (6) 운문사 사리암--매월 넷째 토요일 밤 9시(주관:국제포교부)
- (7) 남해 보리암--셋째 금요일 오전 9시 출발(주관:3기 생불공양)
- (8) 1080배 참회기도--셋째 금요일 오후 8시 법당(주관:금강회)
- (9)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기행--매월 셋째 일요일 주제별로 행사(주관: 국제부)
- (10) 가정법회--보살님 : 부암동(3째 수요일 오후2시), 용호동(3째 목요일 오후2시)
거사님 : 금강회(2째 월요일 오후 7시)
- (11) 부광명인불자회법회--셋째 일요일 오후 1시(맹인 및 농아)자원봉사:용호동가정법회
- (12) 신행단체장 회의 -- 마지막 월요일 오후 2시
- (13) 자원봉사자 교육--지장재일 오후 2시

4) 주간

- (1) 청소년 포교부-마하 어린이법회(일요일 오전10시 선원),
반야 중학생회, 바라밀다 고등학생회(일요일 오전10시 화엄회관)
- (2) 심경 청년회(화요일 오후 7시 선원)
- (3) 어린이합창단(토요일 오후 4시 법당)
- (4) 선원 철야(토요일 오후 10부터)
- (5) 금강초롱법회-대학생모임(토요일 오후 5시)
- (6) 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법회(월요일 오후 6시30분. 법당)
- (7) 어린이 사물놀이-토요일 오후 3시
- (8) 어린이 무용-#요일 ##시
- (9) 화엄문화서당 무료한자교실-(목요일 오후 2시)
- (10) 화엄문화서당 명심보감강의-(금요일 오후 2시)
- (11) 사군자반-(월요일 오전 10시)
- (13) 문화관 취미활동프로그램-어머니합창단 혼성 중창단. 어린이 합창단,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꽃꽂이, 가야금, 장구와 경기민요, 사진부, 여란다회, 수화반 등이다.

5) 특별행사 -사)한나래문화재단주관행사

- (1) 세계연날리기대회(음, 정월. 해운대 백사장)
- (2) 전국대학생 택견대회(양, 9월 부산 구덕 실내체육관)
- (3) 전국청소년 예술제(양, 9월 부산청소년문화회관)
- (4) 부산 여성 문학상(양, 9월 코모도 호텔)

4. 맺음말

시대가 변하므로 불교도 적정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기중심을 잃지 않는 정체성 확립은 그에 못지않게 절박한 일이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의 생활인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기초 위에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결론 지어 본다.

출가 수행자의 자존심을 가지면서도 이 시대의 중생들이 진정 무엇을 갈망하는기를 살피서, 그 갈망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 동사섭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드웨어이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과 여건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사찰 고유의 역할인 기도와 수행공부도 추구하면서, 문화적인 편안함으로 초심자를 끌어안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도록 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기존의 법회와 기도 등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심사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장소로서 산사를 찾는 일이다. 또한 도심사찰이기에 가능한 행사를 찾아서 사회와 생활과 종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일은 곧 사찰이 생명력을 갖는 일이다. 휴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와 선행(善行)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동시에 많다는 말이고, 따라서 인생의 참 의미를 느끼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 도심사찰은 취미생활에서 신행생활까지, 나아가서는 보살행을 하는 종합복지타운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부언할 것은 우선 호감을 가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본으로 돌아가면 스님들만 수행자가 아니라 불자는 다 수행자이어야 한다는 의식의 저변확대가 더욱 더 필요하고, 따라서 여유 있는 시간을 휴식이나 취미생활에만 소비하지 말고, 자신을 향상시키는 수행에도 진지하게 관심가지는 불자를 만드는 것이 모든 사찰의 시대적 역할이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심사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

일문스님(과주 보광사 주지)

한국불교계는 1975년 무렵 서울의 불광사가 현대적인 의미의 포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80년대 불교방송의 개국과 서울의 구룡사, 능인선원 같은 도심사찰의 신도교육과 법회중심의 대중포교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룡사와 능인선원 같은 불교포교의 성과는 백고좌법회 등의 새로운 포교형식의 개발과 능인선원과 같이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든 원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불교는 주5일 근무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흐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우리사회에 정착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성장일변도의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여가와 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성숙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사회도 이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레저와 휴식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종교행사와 레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종교의 비중이 축소되는 사회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우리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불교포교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산스님의 발표문의 내용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기준에 해오던 법회와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되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춰 연계되는 신앙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심산스님의 발표 내용에 덧붙여 몇 가지를 더 거론하자면 심산스님은 개사찰중심의 포교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 생각에는 포교의 큰 흐름은 종단에서 잡아가고 각 단위 사찰들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입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춰나가는 자세가 중

요하겠으며 포교의 중심에 서게 될 스님들이 불교수행과 아울러서 신도들을 제접하고 상담하는 기능이 많이 보완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레저와 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에서 구룡사처럼 사찰에서 극단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불교법회 이외의 내용으로도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수 있게 불교문화 포교를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중단적인 관점에서는 예를 들면 초과일과 백중 등의 행사를 전 국민적인 하나의 한국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레저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가 텅비게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방의 명산에 있는 사찰주변에 스키장이나 콘도, 놀이시설 등의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사찰수행환경 파괴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경직된 자세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중단에서 스님들의 수행에 꼭 필요해서 지정하는 몇 개의 교육, 수행도량 이외의 사찰들에 대해서는 사찰 이외의 주변 레저시설과 접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게 하되 사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불교계 주위에 제3수행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 공부를 표방하는 불교계가 사람들의 마음 공부를 이끌어주고 지도하는데 소홀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수행을 표방하면서도 신도들에게 참선지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조계종의 신행풍토에서 서울 안국선원에서 일반신도 들을 대상으로 대중적인 참선공부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 02)720-7060~4 FAX 02)720-7065

<http://pogyo.org>

32042002-048